

학교소식 1

탕정초, 한글사랑 바른글씨 쓰기 대회 실시



탕정초등학교(교장 서성자)는 10월 7일(화) 전학년을 대상으로 바른글씨 쓰기 대회를 가졌다.

학교교육과정 운영 계획에 의거 실시된 이번 행사는 글씨를 적게 쓰는 요즈음 학생들의 바른 글씨 쓰기 습관형성을 위해 실시한 대회로 어려서부터 글씨를 바르게 쓰는 방법을 익히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대회에서 우수한 학생에게는 학교장 표창을 비롯하여 학급 게시판에 부착하여 다른 친구들이 보고 배울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용화초, 글자를 직접 찍어 보았어요! 청주 고인쇄 박물관 견학



용화초등학교(교장 황대연) 4학년은 10월 8일(수) 청주 고인쇄 박물관과 청주 국립박물관으로 현장체험학습을 다녀왔다. 청주 고인쇄 박물관에서는 직접 자판에 종이를 대고 글자를 찍어 보았다. 청주 국립 박물관을 둘러보면서 우리나라의 우수성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았다.

배방초 취타대, 평생학습축제 참가

배방초등학교(교장 김광태) 취타대원 37명은 10월 6일 신정호관광지에서 열린 제8회 충청남도 평생학습축제에 참가하였다.

취타대는 함께 배우는 즐거움, 나를 찾는 기쁨! 이란 주제로 개최된 충남평생학습축제 한마당을 찾은 아산 시민들께 화려한 의상과 무령지곡의 힘찬 연주를 선보여 이낌없는 박수갈채를 받았다. 이번 행사를 통하여 취타대원들은 우리의 전통 문화를 널리 알린 것에 대해 뿌듯함과 자긍심을 갖게 되었다.



온양온천초, “우리 멋을 배워요”

온양온천초등학교(교장 박익현) 가족사랑 평생교육 한지공예 수강생들은 10월 7일(화) 본교 미술실에서 한지공예로 두 번째 작품을 만들었다.



오늘은 첫 작품인 사각접시에 이어 팔각접시를 만들었는데, 참여한 학생들은 엄마와 함께 한지를 직접 자르고 조립한 후 정성스럽게 파놓은 문양을 풀칠을 하면서 한지의 특성과 다루는 방법을 터득하였다.

이 강좌는 학생, 학부모, 교직원,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11월 14일까지 매주 화요일 마다 무료로 실시하는데, 조상의 슬기와 멋을 함께 느끼고 배우며 계승하자는 취지로 개설되었다.